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023 Vol.28

# 음악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023 Vol.28

# 음악 즐거움



## | 세우는 소리

학장님 말씀 .....	6
“세계적 리더로서의 서울대 음대가 되기 위하여” 최은식 학장	
신임교수 인터뷰 .....	8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함을 느끼는 것” 국악과 김정승 교수	
퇴임교수 인터뷰 .....	11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교수자가 되다” 관현악과 이경선 교수	
수상자 인터뷰 .....	13
2023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콩쿠르 트롬보니스트 서주현	

## | 현재의 소리

새롭게 변한 음악도서관 .....	16
〈서울대 음대 레슨노트〉 : 22학번과의 인터뷰	20
모차르트가 풀어낸 터키 이야기, 제33회 정기오페라 〈후궁탈출〉	22
“해금에 담긴 희노애락” .....	24
국악과 노은아 교수	

## | 어우러지는 소리

2023 1학기 화요음악회 리뷰 .....	28
2023 1학기 런치콘서트 참가자 인터뷰 .....	30



## | 세우는 소리

### 학장님 말씀

“세계적 리더로서의 서울대 음대가 되기 위하여”  
최은식 학장

### 신임교수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함을 느끼는 것”  
국악과 김정승 교수

### 퇴임교수 인터뷰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교수자가 되다”  
관현악과 이경선 교수

### 수상자 인터뷰

2023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콩쿠르  
트롬보니스트 서주현



## 학장님 말씀



# 세계적 리더로서의 서울대 음대가 되기 위하여

최은식 학장

최은식 학장은 서울예고 재학중 LA필하모닉 수석 비올리스트 오야마 헤이치로에게 발탁돼 미국으로 건너가 커티스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공부했다. 보로메오 현악4중주단 창단 멤버로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을 우승했고, 프랑스 에비앙 국제 콩쿠르도 2위로 입상하였다. 에머넛 현악 4중주단 멤버로서 1997~2001년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에 선정되었고, 현재 비바체 페스티벌과 전주 실내악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신시내티 음악원 교수 역임 후 현재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중이다. 늘 겸손하고 발전에 대해 생각하며, 후학양성에 어떻게 힘을 써야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최은식 학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학부시절로부터 교수로서의 시간까지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학 졸업 후 커티스 음악원에서 만난 스승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4년 동안 스승님께 음악에 대한 깊이와 테크닉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스승님의 비올라를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에 감명 받아 현재 학생들을 가르칠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한 유학생들을 마칠 수 있었고, 특히 커티스 음악원 한국인 최초 비올라 전공생으로 들어갔기에 더욱 각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내악 지도교수님들과의 수업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현악사중주 팀을 꾸려 활동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음악대학 학생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중에 '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추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 들을 먼저 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 제가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늘 겸손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훌륭한 재능으로 입학 할 수 있었던 만큼 그 재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말했죠. 꿈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슬럼프와 방향, 좌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성공을 좇기 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분명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기회가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디션과 콩쿠르에서 실패를 경험한 뒤 상담을 오곤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젊음이 있으니 코앞에 펼쳐진 현상만 보기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실력과 음악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스승님 또한 저를

그렇게 가르쳐주셨고, 남들과 경쟁해서 1등하고 성과물에 집착하기 보다는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상황에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대학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53동과 49동 콘서트홀 로비의 리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54동과 55동 차례인데, 설계는 모두 끝났고 11월부터 착공하여 24개월에 걸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 생활하는 공간이 좁아질 텐데, 음악대학이 더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잘 협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음악대학 건물이 7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거라고 봅니다. 제가 본 외국 음대들의 환경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에 54동과 55동 리모델링을 최대한 편리하고 활용성이 좋은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연습실 개수를 증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55동 시청각실을 리사이틀 홀 겸 연주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입니다. 또한 석악양상블실 및 실내악실(예명)도 만들 예정이고, 문화관에 있는 타악기실과 오페라실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완공되고 나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와 공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잘 기다리고 협조해주어 멋진 음악대학이 되도록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 음악대학 학장님으로서 사명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며 굉장히 운이 좋은 순간들이 많았고, 저에게 맞는 전공 선택을 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음악의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고 살아나가며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도 배울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도 다른 대학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며 서로 좋은 영향을 받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우리 학생들이 입상중인데 앞으로도 학생들

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진실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온 우리 학생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꿈이고, 선생으로서 또 학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올라 연주자로서나 다른 일로 계획한 것도 많지만 저는 교수로서 학교 내에서 훌륭한 동료들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값지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저에겐 얼마나 큰 보람이자 '선물' 인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좀 넘는 시간동안 그를 인터뷰하고서 느낀 점은 음악을 대하는 애정도나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이다. 특히 현악 4중주를 와인에 비유한 말에서 비올라에 대한 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멜로디를 연주하는 제1 바이올린은 와인의 라벨, 첼로는 와인 전체를 감싸주는 병, 제2 바이올린은 와인병이 숨쉬게 해주는 코르크 마개, 그리고 비올라는 그 속에 담긴 와인이다.” 현악 4중주에서 그만큼 비올라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다. 비올라는 다른 악기를 지지해주는 악기로서 리듬감이 좋아야하고 음악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최은식 학장은 최근 한 외국 손님과 만나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태어나서 악기를 하더라도 다시 비올라를 선택할 것 같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더욱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학장으로서 많은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꿈을 향해 달려나감과 동시에 학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탐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감명깊었다.



글\_홍다빈(성악과)

## 신임교수 인터뷰



#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함을 느끼는 것

국악과 김정승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한 김정승 교수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며 서울돈화문 국악당 초대 예술감독, K-Arts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 국립국악원 공연 자문 및 심사위원, 국립극장 자문위원, 서울시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09년에는 KBS 국악대상 관악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김정승 교수는 “어떤 전공이던 행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연주자 뿐 아니라 기획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다양한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풀어내었다. 그의 20대를 돌아보는 인터뷰 내용은 열심히 꿈을 좇다 지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김정승입니다. 제 전공은 대금(大笏)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악단에 들어가 연주활동을 하다가 2002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 다시 입학했고, 2005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2012년에 졸업했습니다. 한 국예술종합학교에서 10년간 근무했고 올해 3월 서울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신입 교수가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 글의 독자들이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20학번 이후의 세대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91학번이니 30년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저의 이십대를 보냈던 공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30년 뒤의 이십대를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새롭기도 하고 낯익기도 한 학교에서 첫 학기를 보내며 기대반 걱정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수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좋은 사표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것들은 내려놓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안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 학부생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이지만 꾸밀 수 없으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우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음 속 깊은 곳에 성실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저의 학부시절을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몰랐던 학생이었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 나의 일상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몰랐거나, 어렵듯이 알면서도 곤장 회피하고 마는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학 후 겨우 1년을 보내고 나서 휴학을 했고, 그 때부터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방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를 그만둔만한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었고 무의미하고 우유부단하게 보낸 수년간 저의 학점은 기록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언제쯤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따져보기 위해 발급 받은 성적 증명서에는 F가 수도 없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몇 학기를 더 다니며 재수강한 과목을 겨우 C나 D학점으로 메꾼 것이 전부였습니다. 1백만 원이 채 안 되는 등록금과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되었던 학생들의 복권을 위해 학사경고 및 제적 규정의 적용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의 졸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부 시절 저는 불성실하고, 우유부단하고, 끈기 없고, 겁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 교수님께서서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의 경험은 제 연주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악의 여러 악곡들을 전곡 연주하는 경험이나 원로 사범들의 가르침은 대체 불가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악단에서만 가능했던 연습과정과 연주활동은 정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연주 스타일의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악단 활동 외에도 한국현대음악앙상블(Contemporary Music Ensemble Korea)의 창단 멤버로 활동하면서 전통악기를 위한 현대음악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등으로 나누어 연주자가 한 장르에 집중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립국악원에서 현대음악을 학습하고 연주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이때 훌륭한 동료들로 구성된 팀 활동을 통해 악기와 연주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음악에 관심이 생겼던 저에게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CMEK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16년 동안 연주활동을 하던 중 201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까지 한예중에서 교육과 연주를 병행해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초대 예술감독이 되어 많은 공연들을 직접 기획, 제작했고 2019년부터 2년간 한예중 6개원의 공연과 전시를 총괄하는 공연전시센터의 예술감독을 역임했습니다. 공연기획과 제작은 연주와는 다른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타 장르의 예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주가로서 지향하는 바와는 사뭇 다른 일이라 생각하여 앞으로는 연주와 연구 그리고 교육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국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전공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행복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 조깅을 한다거나, 산에 오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조용히 책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게 무엇이든 그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 순간의 감정을 오래 유지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자신의 예술을 가져오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위로 받을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선 내가 감동받아 본 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나 아무도 깨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새벽에 세상과 분리된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소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음악가의 일상이 아님을 다들 잘 아시겠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소리를 찾아 갈 수 있다면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한 반 이상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교수자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는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를 열심히 정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상가 집에서 열심히 올라가 누가 죽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죠. 서울대 음대의 교육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는 어떤 사람들을 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대학이라면 이제 예술계의 BTS를 배출해야 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대 음대의 교육목적이 달성되고 학교로서의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 것일까요? 학교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연구와 교육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일구어 나갈지 아직까지는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마지막으로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하는 이란성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올 해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 살이 된 저의 삶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졌음을 느낍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행동 양식도, 음악을 하는 이유도 그 기준으로 크게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30년 전 스무 살이었던 저는 이제 스무 살 아들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을 옛날 그 공간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십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민과 열정의 소용돌이를 통과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덜 불행하길 바랍니다.

글\_양희윤(국악과 가야금전공)

## 퇴임교수 인터뷰

#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교수자가 되어

관현악과 이경선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은 인디애나 음악대학의 종신 교수로 임용되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의 오랜 교수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 결심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84학번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2009년부터 13년간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다 몇 달 전 미국으로 이직을 한 이경선이에요.

### **인디애나 음악대학으로 이직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결심의 이유를 여쭙봐도 될까요?**

한국은 65세 정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끝내야 하는데, 미국은 종신 제도가 있어서 제가 평생 현역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서울대에서 더 오래 가르치고 싶었지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이번에 용감하게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도 제가 떠나면서 이 자리에 좋은 후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는 학교 학생 외에 가르칠 수 없는 제도가 있어서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학생들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떤 학생을 가르쳐도 괜찮아요. 여러 학생을 보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서울대학교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날짜 수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인디애나 대학에선 언제든지 해외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자유롭습니다.

### **그래도 서울대학교를 떠나면서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제 모교잖아요. 모교이기도 하고, 한국의 최고의 학생들이 모이는 배움의 장인데, 여기를 갑작스럽게 떠나서 엄청 아쉽고 섭섭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렇지만 제가 워낙 한국에 자주 오고, 방학이라는 시간에는 앞으로도 한국에 나와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간다는 느낌보다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국에 오면 여기 교수님들과도 왕래할 수 있고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미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에 제가 더 드러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는 우물 안 개구리의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는 큰 땅에 있으니까 유럽과도 연결이 쉽습니다. 그래서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인디애나 대학에 종신교수로 스카우트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끌어와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한국에 와서 좋은 학생들을 물색해서 데리고 가는 게 제 목표예요.

##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연주자로서 청중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첫째도 둘째도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선생이어야 한다고 봐요.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모범적인 스승,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승이기를 바랐습니다. 청중에게는 매번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준비합니다. 작은 연주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음악인이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우리 학교는 한국에서 최고잖아요. 역사적인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계속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그 한국 안에서 서울대학교가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이고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역시 서울대인답다'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이경선은 연주자와 교육자의 역할을 뛰어나게 소화하며, 끊임없는 열정과 탁월한 연주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눈부신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앞으로 오래도록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이경선의 모습을 기대한다.

글\_송예진(음악학과)

## 수상자 인터뷰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들고 고달픈 과정을 겪도록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음악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콩쿠르 출전일 것이다. 콩쿠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연습이 잘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 힘들지만, 콩쿠르가 끝난 후에는 후회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렸던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은 이와 같이 많은 콩쿠르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좋은 결과를 전해주고 있다.

오늘 인터뷰할 대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트럼보니스트 서주현(20)이다. 서주현은 올해 5월 14일 개최된 '제74회 2023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에서 트롬본 부문 2위를 수상하였다. 트롬본 부문은 본 콩쿠르에서 지난 2011년 이래 12년만에 개최되었다고 하며, 33명의 본선 통과자 중 단 3인의 결선 진출자가 가려졌었던 만큼 명예의 수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파이널을 붙었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부터는 ‘꿈을 꾸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인상 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연주를 들어주시는 분들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강렬한 감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20회 동아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참가하여 1위를 수상하였고 금호 영재 콘서트와 영 아티스트 오디션에 합격하여 독주회를 개최하였으며,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인재 장학생에도 선발되어 국내에서 또한 좋은 성과를 내던 그였다. 하지만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콩쿠르는 국내의 사람들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것인 만큼 떨림과 긴장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해외 무대에 선다는 값진 경험과 더불어, 그의 노력에 마치 답을 하는 것 같은 수상의 결과까지 얻은 그는 콩쿠르를 치렀던 것이 잊지 못했던 행복한 기억이라고 답했다. 또한 콩쿠르를 치르기까지 있어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나?’ 하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서주현은 콩쿠르에서 힘들었던 점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습하거나 연주하는 과정과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열심히’와 ‘잘한다’의 기준은 잦 수 없이 항상 높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곁에서 그의 학교 동기들과 선배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그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계속하여 격려하며 도와주셨던 것이 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 또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저는 대회에서 나눠준 악보 중 작은 악보가 솔로파트가 적힌 악보인 줄 알고, 그 악보를 들고 올라갔는데 하필 그제 전 악기의 악보가 다 적혀있는 총보여서 경연 내내 음악보단 악보 넘기는데 집중하느라 무대를 망쳤다 생각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는 결선 무대에 올라갈 때에 악보를 잘못 가지고 올라갔던 상황을 무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으로 뽑았다. 무대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든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 또한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악보가 아닌 다른 악보를 무대에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무대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평평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머리가 하얘지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속상했었다고 하는 그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트럼본만큼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소리를 만들어 주는 악기는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전공하고 있는 ‘트럼본’은 금속제의 관으로 된 금관 악기이다. 피아니시시모(ppp)에서 포르티시시모(fff)까지의 폭넓은 다이내믹이 특징이고, 관현악과 취주악의 화성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즈나 포풀러에서는 아름다운 음으로 독주면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트럼본이 가지는 매력으로 슬라이드를 통한 음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다양한 음색 및 스타일을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올라운드’를 꼽았던 그는 트럼본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열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좋은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상을 하고싶다!’ 또는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보다는 ‘이 곡을 콩쿠르에서 연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와 같은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이 음악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하는 순간을 사랑해야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무대를 두려워하거나 이후 결과에 집중하기보단 무대에서 음악을 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을 잘하지도, 말솜씨가 좋지도 않다고 말하며 겸손함까지 보여준 그는 결과론적인 목표로 콩쿠르를 마주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무대에서 연주하는 잊지 못할 경험을 쌓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활자로 나와 두고두고 꺼내어 볼 수 있는 글과는 달리, 음악은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자신을 음악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빠져들어야 더 좋은 연주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콩쿠르는 개개인의 우열만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들을 위한 축제로 존재 한다는 심사위원 중 한 분의 말씀이 그에게 크게 인상 깊었다는 생각을 밝히며, 자신이 곡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마음껏 즐기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글\_이고은(성악과)

## | 현재의 소리

새롭게 변한 음악도서관 \_\_\_\_\_

〈서울대 음대 레슨노트〉 : 22학번과의 인터뷰 -

모차르트가 풀어낸 터키 이야기, \_\_\_\_\_  
제33회 정기오페라 〈후궁탈출〉

“해금에 담긴 희노애락” \_\_\_\_\_  
국악과 노은아 교수



## 새롭게 변화한 음악도서관

### 음악도서관 설립 배경

서울대학교 음악도서관은 1959년 음악대학 자료실로 시작하여 1962년에 음악대학 도서관으로 정식 개관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엘리트 음악인 양성을 위하여 실기의 측면뿐 아니라 학술적 뒷받침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자랑이다. 현재 음악도서관은 74동 예술복합연구동 1층에 있다.

음악도서관에는 2만 3천여 점의 악보를 비롯하여 만 3천여 점의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음악 위주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이 보유하던 악보 자료 6천6백여 점을 인수하여 음악대학 구성원이 더욱 풍부한 자료를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혁	연월일	내용
	2022. 07. 01	• Anna Yates-Lu 교수 음악도서관장 취임
	2022. 04. 06	• (주)두원개발 기부, 3개월간의 리모델링 및 개관
	2020. 07. 01	• 이민정 교수 음악도서관장 취임
	2019. 05	• 음악도서관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정식 개관 • 초대 음악도서관장으로 오희숙 교수 취임
	2019. 01	•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음악도서관 분관 인가
	2018. 01	• 음악도서관 열람실 및 그룹 스터디 룸 신설 운영
	2015. 07	• 음악대학(55동)에서 예술계 복합 교육동 1층으로 이전
	1966.	• 음악대학 도서관에서 음악도서관으로 개칭
	1962.	• 음악대학 도서관 정식 발족
	1959. 08	• 음악대학 자료실 설치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음악도서관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음악도서관 근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음악도서관의 리모델링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만의 리모델링인지, 리모델링의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은 2015년에 55동에 있던 음악도서관이 74동 복합예술연구동으로 옮겨온 후 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음악, 특히 가곡을 사랑하시는 (주)두원그룹의 박용섭 회장님께서 음악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신 발전기금 5억을 사용하여 기존 도서관에서 현재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 리모델링 후 바뀐 부분과 편리해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음악도서관이 전형적인 도서관의 모습이었다면, 현재의 도서관은 음악대학의 특성에 맞춰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열람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 혼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열람석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열람석에는 노트북 이용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여 과제를 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듣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실시하면서 악보와 단행본의 RFID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음악도서관의 도서와 악보를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에서도 손쉽게 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했으나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자료실 공간이 기존의 열람실 공간으로 옮겨오다 보니 서가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서가 공간 부족 해결과 함께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기존 복도였던 공간을 확장하면서 도서관 출입문이 부재하게 되어 도서관 자료 보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 부분도 향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음악도서관에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무엇인가요?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포노(PHONO) 출판사의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인데요, 베토벤, 쇼팽, 리스트

등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해 알기 쉽게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에 대해 소개하는 입문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클래식 음악 전반에 대해 저와 같은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1일 1클래식 1기쁨(클레먼시 버턴힐/월북/2020)>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원리(전상직/음악춘추/2020)>는 음악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도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 도서관 사용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19년에 중앙도서관 음악도서관 분관으로 승격된 이후부터 가능해진 '중앙도서관 및 분관 간 반납'을 아직도 모르는 음악대학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분관의 자료는 모두 음악도서관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며, 음악도서관 자료 또한 RFID 작업 완료로 현재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에서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편안한 도서관 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도서관에서 지원을 받아 악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인 nKoda의 구축도 시작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 검색 → 학술 DB로 들어가시면 nKoda의 활용 매뉴얼 및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음악대학 학생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서관에서 음악대학 학생을 지켜보면 가까운 곳에 음악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관심과 이용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악보, 도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 도서관 이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은 주저 말고 질문 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인터뷰에 도움을 주신 Anna Yates-Lu 음악도서관장님, 김현희 선생님, 장신문 선생님 외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음악도서관 이용에 대해 알아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글\_박경빈(국악과)

## 음악도서관 이용

음악도서관은 평일 09:00 - 18:00에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음악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할 때는 S-Card를 사용한다.

대리 대출은 금지이며, 본인의 신분증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교수의 경우 대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별 대출 책 수 및 대출 기간	구분	악보	단행본	멀티미디어
	교원 (전임교원, 강사, 비전임교원 등)	20책 / 20일	120책 / 90일	10종 / 20일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생, 박사후 과정생, 조교, 직원	10책 / 10일	60책 / 30일	5종 / 10일
	학부생	10책 / 10일	30책 / 14일	대출 불가 (관내 이용)
	동문회원	5책 / 10일	10책 / 14일	대출 불가 (관내 이용)

· 기타 회원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음악도서관 규정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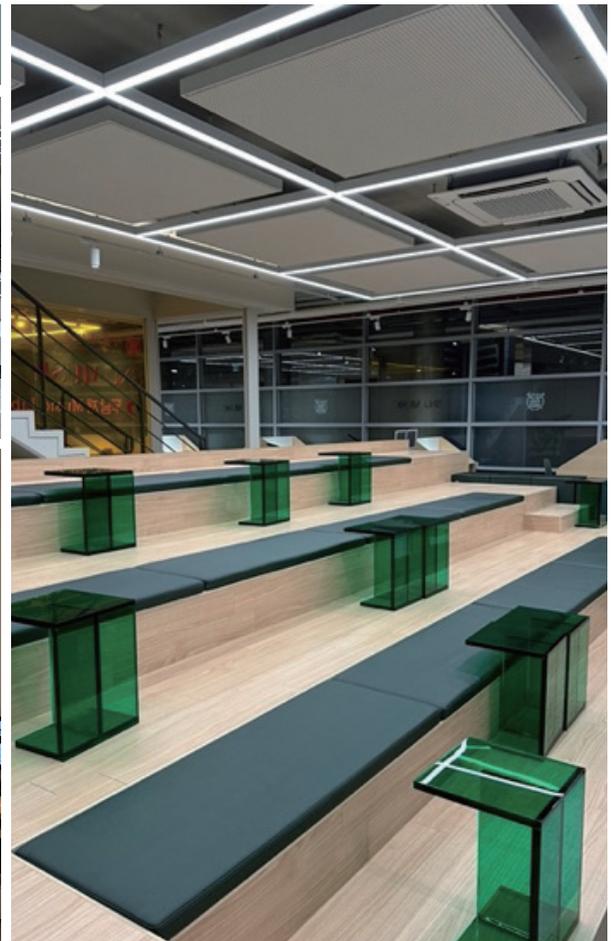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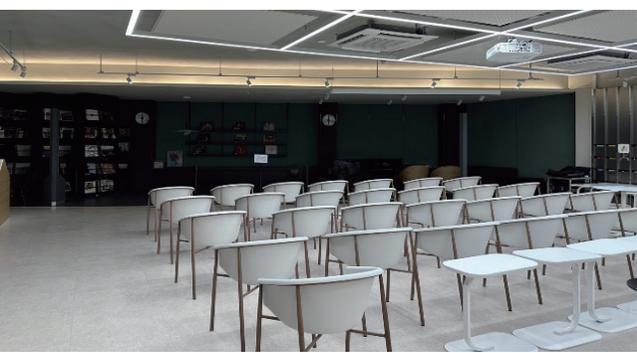
자료 연체 시 연체일 3일째부터 1책당 1일 200원씩(예약 도서는 300원씩) 연체료가 부과되며, 그전 2일도 소급해 연체료가 부과된다.

음악도서관 리모델링 전





음악도서관 리모델링 후



## 서울대 음대 레슨노트 | 22학번과의 인터뷰

〈서울대 음대 레슨노트〉(이하 레슨노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네이버, EBS가 공동으로 기획한 영상 콘텐츠로,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타악, 그리고 국악까지 다양한 전공의 서울대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연주, 그리고 교수와의 1:1 레슨을 영상에 담은 프로젝트이다. 여러 음악대학들의 마스터클래스가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현 시대의 흐름과 같이 서울대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서울대 교수진들의 레슨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쏠렸다.

레슨노트는 2021년 3월 2일 네이버 TV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된 이후로 일년간 주 3회씩 영상을 업로드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이러한 교수진과 학생들, 그리고 레슨노트 관계자들의 노력은 4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교수와 학생 사이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레슨노트, 그 전대미문의 파격적인 시도와 그가 가진 의미를 레슨노트가 공개된 후 입학한 첫 학생들인 음악대학 22학번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국악전공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레슨노트〉를 얼마나 시청하였나요?

**피아노:** 피아노과의 영상을 대부분 시청하였고, 특히 도움이 된 영상들은 2번 이상 반복 재생하며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성악:** 성악과에서 새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챙겨보았습니다.

**현악:** 10번 내외로 시청하였습니다.

**관악:** 3~4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국악:** 4번 정도 시청하였습니다.

###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많이 본 영상이 궁금합니다.

**피아노:** 피아노과 교수님들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와 쇼팽 에튀드 레슨들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성 연주자들에게도 마치 숙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인데, 그에 대한 교수님들의 노하우나 연륜이 담긴 말씀들을 얻을 수 있었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악:** 전승현 교수님이 레슨해주시는 슈베르트의 “송어” 영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소 곡을 연습하며 전승현 교수님의 연주 영상을 많이 보았는데, 이 곡을 어떻게 가르칠지 궁금했고, 영상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악:** 전공이 바이올린이기에 바이올린과 교수님들의 레슨노트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 이경선 교수님과 백주영 교수님의 레슨이 해당 곡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악:** 아르투니안 트럼펫 협주곡 레슨 영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재창 교수님의 레슨을 보며 곡을 어떻게 연습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악:** 이지영 교수님의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레슨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며 연습을 하니 더욱 꼼꼼하게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고등학생들에게 <레슨노트>의 접근성은 어떤가요?

**피아노:** 유튜브에 예고편 영상으로 노출이 되기도 했고, 서울대 음대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음대를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악:** 솔직히 말하자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플랫폼에도 더 긴 영상이 많이 공유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악:** 입학 후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지 못했을 만큼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 솔직히 말해서 찾아보기 쉬운 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악:** 찾아서 본다면 쉽게 볼 수 있지만 레슨노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접근이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습니다.

## <레슨노트>가 입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피아노:** 가장 큰 부분은 접하기 어려운 서울대 음대 교수님들의 양질의 레슨을 무료로 참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아노과의 교수님들과 강사 선생님들의 레슨들을 모두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입시생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곡을 해석하는, 주관적 영역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을 참고하는 것은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레슨노트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큰 동경심을 갖게 해주었고, 합격하여 레슨노트에 출연하는 상상을 하며 입시 준비에 더욱 열의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악:** 교수님들의 레슨을 쉽게 접할 수 없는데, 레슨노트 덕분에 교수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하시는 지 참고할 수 있어 입시를 준비하며 연습하는데 더욱 동

기부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성악:** 영상을 보며 훌륭한 교수님들께 배우고 싶어 입학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서울대 교수님들이 어떠한 음악을 지향하시는지 알 수 있었기에 입시를 준비하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관악:** 레슨노트를 통해 재학생들의 실력을 보며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교수님들의 레슨 스타일을 보며 연습의 방향성을 찾아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악:** 교수님들께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께 직접 레슨을 받는다면 음악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악의 경우 곡은 다르지만 사용되는 수법을 구사하는 법이나 표현하는 법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슨노트>에 대해 아쉬웠던 점 혹은 권의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피아노:** 한 레슨 당 연주와 레슨 등으로 분류된 영상이 여러 개 업로드 되는데, 이 영상들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 원하는 영상을 찾는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더 잘 정리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악:** 레슨노트가 더이상 업로드 되지 않을 때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 되었으면 합니다.

**현악:** 레슨 한 번 당 업로드 되는 영상의 길이가 더 길었으면 합니다.

**관악:**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는 과정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자체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 유튜브의 예고편 영상에 전체영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나온다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레슨노트에 대한 전공별 22학년 학생들의 솔직한 감상평과 재학생으로서 알기 쉽지 않았던 레슨노트의 장점 및 개선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대 음악대학에 얼마나 좋은 레슨이 많은지를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전하고 싶다는 민은기 교수님의 취지를 떠올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울대 음대 레슨노트>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더욱 많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글\_김세민(성악과)

# 모차르트가 풀어낸 터키이야기

## 제33회 정기오페라 <후궁탈출>



제작년 제32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모차르트의 <후궁탈출>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을 33회 정기 오페라로 준비 중이다. 성악 전공자가 아닌 관람객들에게는 오페라에 대한 내용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과 오페라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보려 한다.

오페라 <후궁탈출>은 오스트리아의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가 작곡한 오페라이다. 그는 역사상 손에 꼽히는 위대한 음악가로 인정받는데, 클래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의 이름과 천재성은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며 그의 음악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모차르트는 35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현존하는 작품은 무려 626편에 달한다. 이는 그가 유년시절부터 뛰어난 천재성을 보이며 작품을 썼기에 가능한 작품의 개수라고 생각된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곡의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음악사에 중요한 변화를 줄 만큼 짜임새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당시 대부분의 작곡가와 다르게 기악이나 성악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독창곡, 합창곡, 오페라, 종교음악 등 많은 장르에서 역사적인 명작들을 남겼다.

오페라의 배경을 살펴보면 독일의 문화가 아닌 터키 오스만제국의 배경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세에 터키 오

스만 제국이 탄생하면서 19세기까지 유럽에서 이슬람 문화의 유행이 자주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이 강성해 영토가 동유럽과 서남아시아에 이르렀던 17-18세기에 이슬람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경탄의 대상이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되어있었다. 유럽인들은 터키 제국의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에 감탄하면서도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어온 야만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두려움과 경멸감 또한 품고 있었다.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의 오스트리아 빈 궁정에서도 '터키 풍'이 한때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귀족들은 터키 스타일의 가구와 장신구 등을 사들였고 집집마다 건반악기에 조그만 북을 달아 터키풍의 음악을 연주 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빈의 오페라들이 대부분 이탈리아어 대본을 토대로 한 작품이었는데, 18세기부터 시작된 예술 분야의 민족주의 운동은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자국어 오페라 작품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모차르트 또한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로 이루어진 이탈리아 오페라와 다르게 독일어로 된 '징슈piel( Sinfspiel, 노래극)' 형식을 취했다. 노래 중간마다 연극처럼 대사가 등장하는 이 형식은 이탈리아어를 이해하기 힘들어 오페라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독일어권 평민 관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모차르트는 이 오페라를 작곡할 즈음 그가 머무르던 하숙집 셋째 딸에게 사랑에 빠져 이 오페라가 성공을 거둔 뒤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바로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Constanze)다.

<후궁탈출>은 연출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15



세기에서 18세기의 터키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주요 등장인물은 벨몬테(Belmonte, 테너)와 그의 하인 페드릴로(Pedrillo, 테너), 그리고 스페인 귀족 처녀인 콘스탄체(Constanze, 소프라노)와 그녀의 하녀이자 친구인 블론데(Blone, 소프라노), 그리고 터키의 태수인 젤림(Bassa Selim, 노래는 하지 않고 대사만 하는 배역), 마지막으로 젤림의 궁에서 경비대장으로 일하는 오스민(Osmin. 베이스)이 있다.

벨몬테와 페드릴로, 콘스탄체와 블론데가 해적에 잡혀 젤림에게 팔린 이후 탈출을 하기 위한 계획과 그들의 삼각관계를 보는 재미가 있다. 탈출계획이 결국 오스민에게 들기는데, 태수가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슬람)도 적을 용서할 줄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마지막에서 벨몬테와 콘스탄체 그리고 페드릴로와 블론데 두 쌍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축하받는 합창과 함께 오페라가 끝난다.

이번 33회 서울대학교 정기 오페라 <후궁탈출>은 독일어로 이루어진 대사와 노래 때문에 아직까지도 독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극장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는 오페라이다. 징슈필로 유명한 다른 오페라로는 <마술피리>가 있는데, 한국에서 <마술피리>는 자주 연주되는 반면 <후궁탈출>은 아직 생소하다. 31회 정기오페라 <일 트리티코>에 이어 32회 <호프만의 이야기>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도전을 하는 레퍼토리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학기 중 무리한 일정이더라도 매번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이번 33회 서울대학교 정기 오페라에도 거는 기대가 크고,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함께 재미와 감동을 느꼈으면 한다.

글\_이현석(성악과)

---

출처

명작 오페라 해설 / 저자 : 삼호뮤직 편집부

OPERA 366 : 매일 1편의 오페라 마스터 / 저자 : 백남옥  
네이버 지식백과 / 글 : 이용숙

# 해금에 담긴 희노애락

국내외로 해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도 아름다운 해금 소리가 매일같이 흘러나온다. 이번 기사에서는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노은아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 해금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금이 가진 매력은, 독특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색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을 '한'의 음악이라 합니다. 민중을 짓누르던 사건이 많았던 만큼 민중들은 '한'을 노래하며 시름을 달래왔습니다. 해금 연주를 들어 보면 그 두 줄의 울림이 서정적이면서도 애절함을 불러 일으켜 심금을 울린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해금은 아주 재밌고, 익살스러운 경쾌한 소리도 지니고 있어서 반전의 미학이랄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언제나 함께 공존하고, 해금의 소리 또한 인생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해금의 두 줄이 각각 '한'과 '해학', '눈물'과 '웃음', '애절함'과 '신명', '음'과 '양'이라 생각합니다. 해금은 이러한 양면의 감정을 손끝에 담아 두 줄을 울려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 내는 아주 신비한 악기입니다. 그 덕분에 해금은 엄숙한 궁중음악에서부터 유랑인의 구걸 음악에 이르기까지 극과 극의 음악적 표현을 천연덕스럽게 펼쳐 보이며 영역을 확대해 온, 작지만 실속이 있는 아주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악기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 해금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8살부터 리틀엔젤스 예술단원으로서 한국무용과 노래, 가야금을 하며 공연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다리부상으로 무용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운명적으로 해금을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무용을 하며 무수한 전통음악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외우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해금을 잡는 순간 악보도 없이 여러 곡의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그 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지금 까지 저는 해금과 한 몸인 듯 지내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해금이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금은 고려조 이후로 조선조 제례악과 연향악, 행악 등의 궁중 의식 음악부터 줄풍류, 대풍류, 노래반주는 물론 민간음악에도 두루 사용되어왔습니다. 또한 해금은 궁중과 관청의 행사 음악 외에도 고풍스러운 선비들의 문방(文房)에 올라 조선 후기 풍류 음악에 편성되었음은 물론 '깡깡이'라 불리며 시골 장터와 촌판에서 삶에 찌든 민초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즐기는 서민의 악기로도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악기입니다. 이렇듯 해금은 다양한 환경에 자생하며 음악적 영역을 확대하였음은 물론, 관악기의 음색과 현악기의 음색을 고루 포용하며 궁중음악부터 일상 속 유랑인들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적 쓰임이 많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해금은 서양음악의 음계와 옥타브 내 열두 반음에 해당하는 모든 음의 발음이 가능하고 조옮김이 자유로워 동서양의 가락을 모두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잔하고도 해학적이며 심금을 울리는 독특한 음색과 표현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아 창작음악의 영역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금은 '21세기를 위한 악기'라는 칭호를 얻으며 대중화, 보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금은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으며,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본질 그대로 앞으로 세계적인 악기로 음악적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 화요음악회를 SNU 해금 앙상블 팀과 연주하셨는데 함께 연주하게 된 계기와 소감이 궁금합니다

제가 해금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정말 많습니다. 본교에 부임하면서부터 모든 해금 전공 학생들이 함께하는 연주를 구상해왔고, 1년 전부터 이 공연을 위해 학생들이 정기적인 연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벌써 작년이네요. 그날 화요음악회의 두 프로그램이 쇼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오래 공들여 그런지, 너무 사랑스럽고 또 훌륭한 제자들과의 무대가 정말로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홍보하자면,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오후 다섯 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SNU 해금전공자들의 〈Seoul Haegeum Ensemble〉 창단연주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해금전공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40명의 해금연주자가 [해금의 세계]라는 타이틀로 해금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싶으신가요?

현재 우리 학생들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예술적 소양과 연주 기량은 물론이고, 시야를 확대하여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특별한 능력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 해금을 연주하고 전하고 교육하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 각자의 능력을 알아보고 격려하여 넓은 세계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글\_차원서(성악과)



## | 어우러지는 소리

2023 1학기 화요음악회 리뷰

2023 1학기 런치콘서트 참가자 인터뷰



# 2023 1학기 화요음악회 리뷰

2023  
 Tuesday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PM7: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1st Semester  
 Late-up

03 / 21  
 “바흐와 춤을”  
 Cello 김두민

04 / 25  
 “Aviram Reichert Plays Gershwin”  
 Piano 아비람 라이헤르트

05 / 16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서울비르투오지”  
 Violin 이경선

06 / 13  
 “The Romantic Horn”  
 Horn 김종박

• 주최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nu@naver.com

SNU MUSIC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예술공연 행사이다. 음악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들이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1학기 ‘수요음악회’를 명칭으로 시작된 본 음악회는 1996년 2학기부터 ‘화요음악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0321 Cello 김두민 “바흐와 춤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관객들에게 친숙한 유명한 곡이다. 멜로디에서 첼로의 따뜻하고 무게감 있는 음색과 풍성한 울림이 잘 드러난다. 2번에서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눈에 띄는데, 알라망드를 지나 빠른 속도감의 쿠랑트까지 이어진 후 사라방드에 이르러서는 긴장감이 완화되며 느긋한 음악이 연주된다. 어두우면서도 희망을 담은 그의 작곡법이 잘 드러난다. 3번에서는 역동적인 첼로의 연주가 돋보인다. 아주 빠른 춤곡인 부레는 강한 악센트로 리듬감을 살려 무곡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프렐류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춤곡 이름의 악장으로, 제목에 나타나듯 춤곡의 성격이 곡에서도 나타난다. 오로지 순수한 첼로의 선율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연주였다.

### 0425 Piano 아비람 라이헤르트 “Aviram Reichert Plays Gershwin”

이 날 연주에서 아비람 라이헤르트 교수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에 기여한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의 대표작품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프렐류드 2번〉을 연주하였다. 〈랩소디 인 블루〉는 20세기 초 미국의 음악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며 프렐류드와 재즈가 만나 클래식하면서도 대중적인 음향이 만들어진다.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는 거슈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곡을 통해 재즈를 세상에 알렸다. 본래 재즈 밴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었으나 이번 연주에서는 피아노,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이 함께하여 아비람만의 연출로 곡을 완성시켰다. 마지막 곡인 〈프렐류드 2번〉은 피아노 협주곡에 재즈를 도입한 작품으로 이 작품 또한 재즈의 색감을 담았지만 고전 음악의 형식을 지키고 있다. 이번 연주를 통해 아비람은 거슈윈의 재즈와 클래식이 결합된 새로운 방향의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주었다.

### 0516 Violin 이경선 “서울비르투오지의 사계”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는 모든 곡의 모든 악장에 소네트(짧은 시)가 붙어있는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각 계절의 싱그러움, 나른함, 고독함과 더불어 비발디만의 계절을 들려주었다. 또한 ‘탱고의 전설’, ‘탱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탱고를 ‘반주하는 음악’에서 ‘감상하는 음악’으로 바꾸어 놓은 인물이다. 그가 작곡한 수많은 탱고 작품은 이전의 탱고들과는 차원이 다른 섬세함과 세련됨으로 주목을 받는다. 피아졸라의 〈사계〉는 계절의 순서와 상관없이 작곡한 후 엮은 작품이며, 그의 곡에는 탱고의 관능적이고 원초적인 감각들이 담겨져있다. 이날 연주는 서울비르투오지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풍성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었으며 또한 같은 주제의 ‘사계’를 연주함으로써 사계를 대하는 작곡가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다.

### 0613 Horn 김홍박 “The Romantic Horn”

이 날 연주된 스크리아빈의 〈Romance for Horn and Piano, WoO.21〉는 호른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음색과 피아노의 감미롭고 우아한 반주가 어우러져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 뒤이어 연주된 곡의 제목이자 16세기 이탈리아의 경쾌한 성악 장르, 혹은 전원시를 의미하는 〈Villanelle〉에서는 첫 번째 곡과는 사뭇 다른 맑은 호른의 선율을 들려준다. 제목의 영향을 받은 듯 잔잔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호른으로 표현해주었다. 세 번째 곡인 〈Adagio and Allegro, Op.70〉은 호른의 화려한 기교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곡인 〈Trio for Piano, Oboe and Horn, Op.188〉에서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피아노, 오보에 그리고 호른이 트리오로 연주한다.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대화에 청중을 참여시키며, 훌륭한 연주 실력을 통해 따뜻하고 로맨틱한 호른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주었다.

글\_ 차원서(성악과)

# 2023 1학기 런치콘서트 참가자 인터뷰



## | 3월28일 | 런치콘서트



### 한현규(피아노)

#### 에튀드 10번과 12번의 작곡 계기가 궁금합니다.

쇼팽, 리스트, 스크리아빈이 12개씩 세트로 에튀드를 작곡을 한 것처럼 저도 12개의 곡이 세트로 구성되는 에튀드를 작곡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번과 12번을 포함해서 총 12곡을 작곡하였습니다.

#### 작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작곡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12번을 작곡하는 데는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0번을 작곡할 때는 처음에 2019년에 작곡을 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 곡을 완성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이디어가 2년 반 동안 떠오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다 2023년 2월에 갑자기 떠올라서 하루 밤을 새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 이은샘(성악)

### 전공이 모두 다른 세분이 같이 공연을 꾸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음악 전공을 하며 많은 무대에 서지만, 막상 컨셉이 정해져 있는 공연이 많다 보니 원하는 멤버로 직접 곡을 선정해 공연을 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런치콘서트는 음대생들에게 자유롭게 열린 무대여서 친한 친구들과 직접 무대를 꾸밀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며 우정을 키운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서 친해진 애린이와 지원이는 사실 봉사연주를 많이 다녀서 이미 힘이 잘 맞는 친구들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함께 맞춰봐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잘 맞아서 즐겁게 연주 준비한 것 같습니다.





## Delicat 듀오(피아노)

특별한 목표(강한 자극보다 잔향을가진 앙상블 음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목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짧고 강렬한 자극들에 익숙해져가는 시대에 앙상블 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마음 속 깊이 은은하게 여운을 남기는 것이 Delicat의 목표입니다. 연주자 본인이 무대에서 즐기고 만족하는 연주보다 관객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것, 즉 관객과의 소통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관객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지 고민하며 무대를 준비합니다. 연주를 청취할 때의 편안함과 분위기는 물론, 공기의 색깔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진 각기 다른 특성과 음색, 음악성을 관객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하였으며, 지루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피아노)

런치 콘서트가 본인의 연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작년부터 런치콘서트에 참여하여 이번에 4번째 연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런치콘서트에 참여하면서 연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잘 없는데 학내의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보러 오시고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니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주 경험들이 학생들이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런치 콘서트를 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음악에 저희만의 색깔을 녹여냄과 동시에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며 음악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런치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저희의 음악만이 가진 가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곡은 강렬하고 퇴폐적인 느낌을 가지는데, 자칫 정돈되지 않고 소란스러운 연주로 흘러가기 쉬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성격을 살림과 동시에, 관객에게 조화롭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관객 분들이 현장에서 저희의 무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객 분들 앞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관객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 긴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대에서는 긴장감을 잊고 관객에게 저희의 음악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연주하며 관객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듯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기획연구센터와 현장에서 힘써주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민정(국악)**

**본인의 전공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국악과 타악전공 김민정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수로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수는 반주자를 일컫는 말로 판소리의 반주는 소리북으로 연주합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리꾼에게 견줄 만큼 고수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수는 소리꾼의 소리에 장단을 더 해서 판소리의 이면을 더욱 입체감 있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추임새를 통해 소리꾼에게 힘을 더해주며 무대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수와 소리꾼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소리 공연을 본 관객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과 새롭게 창작하여 대중에게 사랑받는 예술로 만드는 것 사이, 괴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옛 선생님들이 부단히 지켜온 우리 음악을 무척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배워나가지만 늘 전통에만 얽매어 있을 수는 없기에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여 우리 음악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무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판소리’를 보다 많은 사람이 즐겨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신하늘 사회자 인터뷰**

**처음 사회를 맞게 되셨을 때 소감과 한 학기를 마친 뒤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평소 아나운서와 라디오 디제이 하는 모습을 스스로 상상하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진행을 맡게 되어 간접적으로나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 설레는 마음이 굉장하셨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 보다 더 떨리는 기분도 들었지만 대본과 마이크를 들었을 때의 짜릿함은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주자들을 보면서 느끼거나 배운 점이 있나요?**

평소 타과의 연주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스텝과 사회를 보며 다양한 무대들을 경험하고 여러 연주자들을 알게 되어 너무 값진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에는 사회도 보고 직접 제 무대를 소개한 후 바로 노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회를 보는 게 본인 전공에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라기보다는 무대에 서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행복했습니다. 또한 전공을 살려서 제 목소리로서 사람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설레고 색다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글\_신하늘(성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Vol.28

---

#### 발행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최은식

#### 기획연구센터 기획

기획연구센터장 성재창

기획연구센터 김윤희

#### 기획연구센터

양희윤 국악과

박경빈 국악과

송예진 음악학과

김세민 성악과

신하늘 성악과

이고은 성악과

이현석 성악과

차원서 성악과

홍다빈 성악과

#### 교정

송예진 음악학과

홍성진 음악학과

김소혜 음악학과

#### 출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디자인·인쇄

(주)꿈인디자인&출판

---



SNU MUSIC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 1. 기본정보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type="checkbox"/> 음력 년 월 일
우편수령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주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자택번호:	직장정보 직장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동문 학과(특별과정): 입학년도(기수):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부서: 직위:

## 2. 약정정보

희망사용처	<input type="checkbox"/> 대학 중점사업에 사용되기를 희망 (대학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단과대학(원), 학과, 연구소 등 기관명 [ ] <input type="radio"/> 위임 <input type="radio"/> 학술 <input type="radio"/> 장학 <input type="radio"/> 연구 <input type="radio"/> 시설 <input type="radio"/> 기타 [ ]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액후원 일금 ₩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일 ~ 년 월 일 (회분납)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 원씩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차(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원금보존)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원금사용)		
기금명칭	*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부동기	(남기고픈 말)		

## 3. 납부방법 (택 1)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input type="radio"/> 농협 079-17-000136 <input type="radio"/> 신한 100-014-328209 <input type="radio"/> 우리 1006-601-280134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input type="radio"/> 10일 <input type="radio"/> 25일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결제일: <input type="radio"/> 10일 <input type="radio"/>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radio"/> 교직원 급여공제 <input type="radio"/>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	-------------------------------------------------------------------------------------------------------------------------	-------------------------------------------------------------------------------------------------------------------------------------------------------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 정보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정보 수집 및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선택 정보	동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정보 수집 및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정보 제공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정보 수집 및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 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무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L. 02.871.8004, 02.871.8146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Homepage. www.snu.or.kr

작성한 참여신청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1666-2930로 문자 전송하면 됩니다.

\* ARS 후원전화 060-700-8004 한 통화로 학교발전기금 5,000원이 적립됩니다. \* 우증 및 부등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SNU MUSIC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 2023  
Vol.28